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최창주 마르첼리노

(1749-1801)

'여종'으로도 불렸던 최창주는 경기도 여주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40대 초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그는 온 가족을 입교시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신해박해 때 그만 배교하고 말았다. 이후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순교로 죄를 씻어 내기를 간절히 바랐다.

1800년 부활 대축일, 여주 지역에 다시 박해가 일어났다. 최창주는 가족의 간청으로 한양 피신 길에 올랐지만, 이내 후회하고 집으로 돌아와 체포되었다. 이듬해 신유박해가 시작되면서 고문은 더욱 혹독해졌고, 경기 감영에까지 끌려가게 되었다. 마침내 조정에서는 '그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처형함으로써 그곳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고향인 여주로 다시 보내져 순교하게 되었으니, 때는 1801년 4월 25일, 당시 그의 나이 52세였다.

경기 감사는 최창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그는 모진 형벌을 당하면서도 교회 서적이 있는 곳을 대지 않았고, 끝내 마음을 고칠 수 없다고 하였으니, … 그뿐만 아니라 아주 달가운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성화_김형주 作,「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5

연중 제20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84(83),10-11 참조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뜨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사옵니다.

제1독서 예레 38,4-6.8-10

화답송 시편 40(39),2ㄱㄴ.2ㄷ-3.4.18(◉ 14ㄴ)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

○ 외치는 내 소리 들어 주셨네. 나를 멸망의 구렁에서, 더러운 수렁에서 꺼내 주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워 주시고, 발걸음도 든든하게 잡아 주셨네. ◉

○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많은 이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리라. ◉

○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네. 저의 도움, 저의 구원 당신이시니, 저의 하느님, 더디 오지 마소서. ◉

제2독서 히브 12,1-4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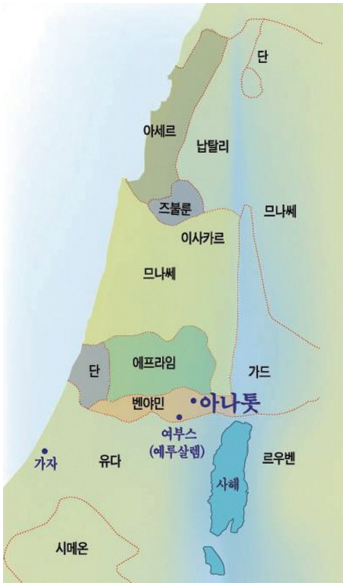
복음 루카 12,49-53

영성체송 시편 130(129),7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매일 오전 8시 〈가정을 위한 기도〉, 저녁 9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주모경〉을 바칩시다. ✚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오늘 복음에는 "한 집안의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서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루카 12,52)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뭉쳐야 할 가족이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상태가 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1독서가 실마리를 줍니다. 기원전 7~6세기 예레미야의 상황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톳입니다(예레 1,1).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옛 고을입니다. 그런데 예레 11,21에 따르면 아나톳 주민들, 곧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그의 목숨을 노립니다. 12,6에는 "네 아버지 집안조차도 너를 배신하고 너에게 마구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들을 믿지 마라." 하신 주님의 말씀도 나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한 가장 큰 원인은 시온 신학과 관계 있어 보입니다. 시온 신학이란 다윗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주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좌를 약속하셨으니(2사무 7,11ㄴ-16; 시편 89,4-5) 시온 산 위의 성전과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기초로 합니다.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는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남왕국도 호시탐탐 엿보지만, 701년 예루살렘 정복에 실패합니다(2열왕 19,20-35). 이에 시온은 안전하다는 신학이 힘을 얻어, 이후 맹목적으로 발전한 듯합니다. 백성이 성전을 난공불락으로 여겼음은 예레 7,3-4.10에서도 확인됩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시나이산 계약에 따른 율법은 자연스레 무시되기 시작합니다.

다윗 계약과 시나이산 계약은 성격이 다릅니다. 다윗 계약은 주님의 은혜로 내려진 "영원한 계약"(2사무 23,5)이지만, 시나이산 계약은 율법을 동반해 그걸 지키지 않으면 고향에서 쫓겨나는 '조건 계약'입니다(레위 26,14-39; 신명 28,15-68).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은 쉬운 다윗 계약으로 기울게 된 반면, 까다로운 시나이산 계약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은 듯합니다(예레 7,9; 16,11 등). 그 결과 종교적 사회적 부패가 심화하자, 예레미야가 시나이산 계약 준수를 역설하며 이대로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신탁을 전달한 것입니다(11,1-14 등). 문제는 대다수 예언자들이 시온 신학에 의지해 무분별하게 평화를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리도 없고 우리가 칼이나 굶주림을 만날 리도 없다."(5,12) 등의 신탁을 전달하며, 유다 왕국을 위협하는 바빌론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거라 선포하였습니다(28,10-11). 바빌론이 이미 제1차 유배로 임금과 귀족을 끌고 갔는데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나톳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반발한 일반 백성(26,9.11 등)과 똑같이 반응한 셈입니다.

예레미야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신탁을 전달해 결국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백성이 하느님과 맺은 약속, 곧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가족 붕괴를 넘어 나라 멸망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짧은 안목으로만 세상의 이치를 판단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 하나의 기준만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김명숙 소피아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박사, 광주가톨릭대학교 구약학 교수, 전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
저서 「에제키엘서」 「예레미야서 1-25장」 「예레미야서 26-52장」 「구세사 산책: 에덴에서 약속의 땅까지」

하느님 백성과 가톨릭 신자

「교회헌장」 제14항

「교회헌장」 제14항~제16항은 '가톨릭 신자' '비가톨릭 그리스도인'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룹니다.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 자격을 설명하기 위한 단계적 분류인데, 이는 사실 교회가 구원에 필요한지를 묻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성자께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하느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을 향해 있다는 성경의 언급에 근거합니다(로마 11,32 참조). 동시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곧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보편적 구원 의지와 구원에 대한 세례의 필요성 사이에는 살짝 틈이 보이는 듯합니다.

「교회헌장」 제14항은 먼저 '가톨릭 신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공의회는 성경과 성전에 따라서 교회가 구원에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확신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개자요 구원의 길'이며 그분께서 '교회 안에 계신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마르 16,16)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신앙과 세례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으며,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의 필요성도 확인하셨습니다. 여기서 '필요성'의 라틴어 원문 [네체시타스] (necessitas)는 필수적이고 불가결하다는 의미입니다. 공의회는 이렇게 가톨릭교회가 구원에 필수적으로 세워진 것을 알면서도 교회 안에 있기를 거부한다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14항은 이어서 교회와 '완전한 합체'(plena incorporatio)를 이루는 것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이러한 합체를 이룬 사람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고, 둘째로 교회 안에 세워진 "완전한 질서"와 "구원의 모든 수단"을 받아들이며, 셋째로 "교회의 가시적 구조 안에서 교황과 주교를 통하여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결합"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신앙 고백, 성사, 그리고 교회 통치와 친교'의 유대들로(vinculis, 끈들로) 그리스도와 결합합니다.

교회와 합체된 사람은 "신앙 고백과 성사, 교회 통치와 친교"로 그리스도와 결합한다. – 세례성사 중 물 붓는 예식

이렇게 교회와 합체된 사람이라도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곧 사랑이 아니라 제도적으로만 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자신의 공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한 것이고, 그 은총에 응답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은커녕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이전의 예비신자들은 합체를 바라는 원의(votum) 자체로 교회와 결합합니다.

강한수 가롤로 신부 사목연구소장

나는 꽃이에요

한창 열심히 일하던 시절, 자주 지쳤습니다. 제 가족은 물론이고 친정 일까지 겹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잠깐 틈이 나면 묵주를 들고 공원을 걸었는데, 그때마다 '나는 왜 몸이 지쳐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과도하게 소모하는 걸까?' 하고 자책했습니다. 힘들면 좀 쉬면 될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제 마음속 소리가 '너는 이대로 충분하지 않아. 아직 부족해.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라고 다그쳤던 겁니다. 그 마음의 소리는 바로 어릴 적, 친정 아빠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그땐 그 말이 채찍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제 몸의 한계를 잊고, 주어진 역할과 돌봐야 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먼저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배우지 못했거니와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님께 착한 딸이고, 하느님께 좋은 자녀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 습성은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지요. 제단에서 미사를 집전하시는 신부님이 성체를 쪼개어 나눌 때, 한 조각을 떼어 먼저 본인이 영한 다음 다른 조각을 신자들에게 나누어준다는 것을요.

'나약하기 짝이 없는 내가 교만하게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챙기지 못했구나.' 사실 내 것을 먼저 챙기거나 내 몫을 남겨놓기라도 하면 왠지 이기적인 것 같고 착한 사람이 아닌 듯 느껴졌습니다. 힘든 누군가를 위해 내어주기만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잃어버리고 남만 생각하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도울 땐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주지 말고 형편에 맞게 떼어서 기쁘게 베풀라고요. 제 주어진 몫을 잘 간직해서 기쁘게 나누는 것도 지혜로운 행동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내어준다는 것, 그 의미를 곱씹다 보면 김용택 시인이 쓴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나의 것을 내어준다는 것과 나를 내어준다는 것은 의미가 달라 보입니다. 그동안엔 제가 가진 것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도 꽃이 되어 살아보렵니다. 우리는 모두 꽃이 될 수 있지요.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다면 제 능력이나 어떤 소유가 아닌 제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향기일 겁니다. 하나 내어준다고 하나 잃는 그런 값싼 나눔이라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믿고 행한 성체의 정신이 아니겠지요.

잎은 나비에게, 꿀은 솔방벌에게, 향기는 바람에게 보내며 다 내어준대도 잃는 건 하나도 없는 꽃. 그뿐일까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위대한 존재, 바로 우리입니다. 하여 움켜쥔 자존심 내려놓고 소중한 거 내어준다고 아까워하지 않으렵니다. 사랑으로 다 내어주고 빈손이 되면 즉시 리필 되는, 잃은 건 하나도 없는, 우리는 하느님의 꽃이니까요.

박지현 요세피나 sbs 공채 1기 방송 구성작가, 저서 「45일의 기적」「일상의 소소한 매듭풀기」「엄마는 순례길 딸은 여행길」

교구 소식

백석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일시 8/24(주일) 16시 장소 백석동 성당 소강당

주례 김종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문의 010-2093-4519 백 루시아

한마음 성경공부 3단계 – 바오로 서간을 통한 바오로의 영성

주제	일시 / 본관 대강당	일시 / 통나무강당
제1강 바오로 사도의 생애와 회심 안에 담긴 영성과 바오로 서간 개요	9/1(월) 14시	9/6(토) 16시
제2강 바오로 사도의 순례 여정	9/8(월) 14시	9/13(토) 16시
제3강 바오로 사도의 신학 : 구원과 성찬	9/15(월) 14시	9/20(토) 16시
제4강 바오로 사도의 신학 : 교회와 성령	9/22(월) 14시	9/27(토) 16시

회비 1인 8만원 [총4회, 교차 출석 가능]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대상 모든 신자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내선번호 211) 신청 ▶

의정부교구 제150차 ME 주말

48시간의 기적, ME 주말에 부부님을 초대합니다.

날짜 9/5(금)~7(주일)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9504-0419 ME 주말분과 대표

2025 DMZ 평화의 길

날짜 9/26(금)~28(주일), 10/17(금)~19(주일), 11/7(금)~9(주일)

대상 초3 이상 누구나 (차수별 40명 선착순) 회비 15만원

주최 민족화해위원회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기억합니다.

8월 23일은 故 김주용 암브로시오 신부의 6주기 입니다.

DIOCESE OF UIJEONGBU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8/22(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하늘의 여왕이신 마리아
강사: 정병덕 라파엘 신부 (인천교구)
문의: 010-2127-0032

신원동 성령기도회
일시: 8/21(목) 10시~12시
장소: 신원동 성당 대성전
강사: 김정희 에프렘 수녀
문의: 010-7711-0903

다물 피정의집 섭리의 길 쉼 피정
1차: 9/5(금)~7(주일), 2차: 9/19(금)~20(토)
3차: 11/15(토)~16(주일), 4차: 12/5(금)~7(주일)
장소: 다물 피정의 집
문의: 033-461-7819, 010-8906-2141

힐데가르드 영성학교 2기 – 심화
일시: 9/8(월) 15시 ~ 10(수)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회비: 25만원,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10-6791-0071 (문자)

사제·수도자와 함께하는 제주 산들순례 피정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우도: 8/23(토)~25(월)
생태순례: 9/15(월)~17(수), 9/26(금)~28(주일),
10/1(수)~3(금), 10/12(주일)~14(화),
10/26(주일)~29(수), 11/2(주일)~4(화)
성지순례(추자도): 9/9(화)~12(금),
10/16(목)~19(주일), 11/22(토)~25(화)
장소: 제주 면형의 집 / 문의: 064-732-4702

한마음다락방 피정 – 18기
2천년 전 초기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느님의 영적 위로와 위안을 받으며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
날짜: 8/29(금)~30(토)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대상: 단체와 가족, 부부 및 개인 모두 가능
인원: 30명 (선착순)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효소단식: 8/28(목)~31(주일)
하느님,바람,나(힐링피정): 9/12(금)~14(주일)
문의: 010-3340-0201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서울대교구 제3지구 무료 치유피정 – 매월 셋째(수)
일시: 8/20(수) 11시~16시 (점심 무료)
장소: 갈현동 성당 지하강당 (연신내역 7번 출구)
내용: 4남매, 신부 3명, 수녀1명, 미사, 안수
강사: 구본흥 신부 (그리스도회 필리핀 빈민사목)
문의: 010-4444-1264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제주성지순례(추자도포함): 9/7(주일)~10(수),
9/18(목)~21(주일), 11/15(토)~18(화)
자연순례: 9/1(월)~3(수), 10/2(목)~4(토)
체나콜로대피정 포함: 10/16(목)~18(토)
문의: 064-796-4182, 02-773-1455

교육 · 모집 ▶▶

마석 성당 교중미사 반주자 모집
미사: 매주일 11시 교중미사
자격: 성가대 반주 경험이 있는 분 또는 전공자
서류: 자원봉사신청서, 이력서, 교적증명서
접수: 이메일 kth0643@uca.or.kr
(서류 심사 후 면접 개별 통보)
문의: 010-8368-5645 성가대 단장
031-593-4231 사무실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2026년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유일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아시아 최초로 좋은 학교(Q.S) 인증
접수: 9/1(월)~19(금)
모집: 전국 전 지역
문의: 043-260-5076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산티아고 스쿨(주중반·주말반) 수강생 모집
주중: 9/9~30, 매주(화) 19시~21시 [2시간, 4회]
주말: 10/11(토), 10/18(토) 09시~13시 [4시간, 2회]
대상: 산티아고 순례길에 관심 있거나 준비중인 분
내용: 순례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준비
강사: 박응렬 글로리오 (「그래서, 산티아고」 저자)
회비: 6만원 / 장소: 부천가톨릭대 평생교육원
문의: 02-2164-6587 (전화접수 가능)
https://lifelong.catholic.ac.kr

2025년 2학기 여정성경공부 비대면 개강
예언서(이사야서~12소예언서): 9/1부터,
매주(월) 20시~22시
가톨릭서간·요한묵시록: 9/2부터, 매주(화) 10시~12시
시서와지혜서(시편~집회서): 9/2부터, 매주(화) 20시~22시
문의: 010-8352-9986 일산 여정

은평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상시 모집
호스피스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분
자격: 호스피스 일반인을 위한 교육 (또는 표준교육)
10시간 이상 이수자
시간: 평일 주1회 4시간 (요일 및 시간 별도 협의)
문의: 02-2030-4297

퇴계원 성당 교중미사 반주자 모집
자격: 전공자나 교중미사 반주 유경험자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제출: eunajoy@ujb.catholic.or.kr (9/7까지)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분야: 전문편집, 영업, 매장판매
서류: 입사지원서 (본사양식)
접수: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서 접수
문의: 02-6365-1829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회사소개-채용정보 참조

SH행복연구소3주년 북토크 – 구원의책 요한묵시록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묵시록 계시록 종말론 북토크
일시: 9/11(목) 14시
장소: 북카페 레벤 (7호선 논현역 1번출구)
내용: 혼란한 삶에 지친 우리가 함께가는 길에
만나야 할 책
강사: 방영미 (가톨릭대학교 종교학박사)
회비: 1만원 (선착순 40명)
접수: 010-2053-8695 주홍미 세레나 (문자)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출간작가 양성과정 2기 모집
일시: 9/16~12/16, 매주(화) 10시~12시 [12주 과정]
장소: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강의실
회비: 45만원 (교재비 별도)
문의: 02-705-8718, scec.sogang.ac.kr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상시 (상담 후 결정)	미리내 수도회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2025 가을,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날짜: 8/28(목)~11/14(금)
장소: 서울대교구 교구청 및 영성센터
내용: 영성, 인문학, 미술사, 문화
신청: 문화학교 홈페이지 culture.catholic.or.kr
※ 8/11부터 선착순 접수

안내 · 기타 ▶▶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성지순례 – 14박15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월 말)
주관: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문의: 010-5735-4578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희년특집 해외 성지순례
10/29(수)~11/8(토)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메주고리예 (KE)
11/5(수)~29(토) 이탈리아 중부 소도시 (KE)
11/18(화)~29(토)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성모발현지 (KE)
11/19(수)~30(주일) 몰타, 시칠리아, 튀니지 (TK)
11/24(월)~27(목) 마카오 (KE)
문의: 1551-1053, www.cpbctour.co.kr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0/8(수) 추석 특선 – 일본 나가사키 (4일, 160만원)
10/18(토)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60만)
11/7(금)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545만원)
11/21(금) 이탈리아 일주 (12일, 560만원)
12/4(목)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5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꼬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원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듯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상담자: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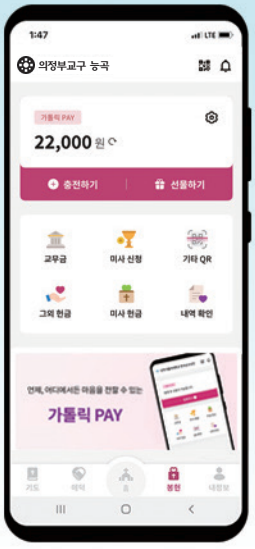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19(금) 일본 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10/9(목)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2일)
10/13(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10/28(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2일)
11/10(월) 희년 이탈리아 일주 (11일)
1/13(화) 유럽 4개국 성모 3대 발현지 (12일)
1/17(토) 멕시코 과달루페, 페루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베트남 라방 성모발현성지
12/8(월) 출발 (5일, 아시아나)
라방성지숙소 1박 포함
문의: 010-5909-5997 김명윤 베네딕도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8(월), 10/20(월) 유럽 4개국 성모발현지 (12일, 495만원)
10/14(화) 조지아, 아르메니아 (10일, 399만원)
10/13(월), 10/20(월)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69만원)
10/22(수) 이탈리아, 메주고리예 (11일, 495만원)
11/4(화), 11/12(수) 이탈리아 (11일, 국적기직항)
11/5(수) 과달루페, 칸쿤 (10일, 695만원)
12/5(금) 다낭성지순례 (5일, 159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주일헌금’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방법이 있다고요?



네! ‘가톨릭페이’로 주일헌금을 납부하면,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무금, 기타 헌금, 미사예물도 본당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 ‘가톨릭하상’ 앱을 통해 ‘가톨릭페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미사예물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가톨릭하상’ 앱에서는 이미 납부한 헌금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전화에 ‘가톨릭하상’ 앱을 설치해 보면 어떨까요?

가톨릭페이 사용 가능 본당 (2025.08.16. 기준)

가좌동	갈곡리	갈매동	고읍동	금촌2동	녹양동	능곡	대화마을	덕소	도래울
동두천	민락동	백석동	법원리	별내	송내동	송산	식사동	신곡1동	신곡2동
신원동	야당	옥정	용현동	운정	원당	원흥동	인창동	적성	중산
주교좌의정부	지금동	참회와속죄의성당	천마	향동	호원동	화전마을	화정동(예정)		

※ 가톨릭페이는 현재 의정부교구 내 38개 본당에서 운영 중입니다.
본당 상황에 따라 일부 기능이 운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지난 8월 15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이었고, 8월 22일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입니다. 성모님께서 천국에서 여왕이 되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리아께 '모후'라는 호칭을 부여하는 건 "천사의 모후, 성조의 모후, 예언자의 모후…"처럼 13번의 "모후"가 나오는 성모 호칭 기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 제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여왕으로서 화관을 쓰고 있는 성화와 성상은, 특별히 16세기 말 이후 서방 교회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모후라는 호칭을 부여한 건 그보다 훨씬 앞선 시대의 전통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화상 대관 예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왕관을 씌워 장식하는 관습은 에페소 공의회(431년) 이후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 모든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그리스도교 예술가들은 주님의 영화로우신 어머니를 묘사하기 위하여, 여왕의 표지를 두르고 하늘의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왕좌에 앉은 모습으로 그렸다. 그 성화상들 가운데에는 어머니께 빛나는 왕관을 씌워 드리는 거룩하신 구원자가 그려진 것도 드물지 않다"(3항).

로마 트라스테베레의 성 마리아 성당 압시드 모자이크 (부분)

교황 비오 12세(1939~1958년 재위)는 1954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 관한 교의 선포 100주년이던 '마리아의 해'를 마감하면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축일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20세기 시작과 함께 발전해 온 교회 운동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마리아의 모후성은 1900년 리옹에서 열린 마리아 대회에서 제안되었고, 1902년 프리부르그와 1906년 아인시델른에서 다시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교황 비오 12세는 회칙 「하늘의 모후」 (*Ad Coeli Reginam*)을 통해 5월 31일을 '여왕이신 마리아 축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력 개정을 통해 5월 31일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이 되고, '여왕이신 마리아 축일'은 등급이 기념일로, 명칭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로 바뀌면서 날짜는 8월 22일로 정해졌습니다. 8월 22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의 제8일에 해당하며, 이는 성모님의 승천과 모후성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성모 승천 대축일의 기쁨은 7일 후 여왕이신 복되신 동정 성 마리아 기념일에서 계속됩니다. 이 기념일에는 영원하신 왕 곁에 좌정하신 엄위로운 여왕 마리아께서 어머니로서의 전구도 계속하심을 기념합니다"(「마리아 공경」 6항).

성모 승천 대축일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모후 기념일 사이의 한 주간을 보내며 천국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전구해 주시는 성모님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 영광의 신비를 바쳐보면 어떨까요.

성모몽소승천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임 신 부 : 홍유선 임마누엘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 요 일	19:00	월, 화, 수, 목, 금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 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15:00	단체 순례객 미사 신청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무실 문의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21일 비오: 조준규, 최진우

전 례

◉ 9월 성시간
일 시: 9월 5일 금요일 오후 3시

◉ 9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9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공 지 / 단 체

◉ 8월 사목협의회의
일 시 : 8월 17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9월 봉성체
일 시: 9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교중미사 주송자, 예물봉헌 담당

8월 17일	주송자	신은석 안젤라
	고백주 안토니오, 허경옥 도로테아	
8월 24일	주송자	전옥자 수산나
	권우석 라파엘, 정윤정 라파엘라	

우리들의 정성 (8/4 – 8/10)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3건 ……	180,000원
주 일 헌 금	……	785,000원
하느님의 집 2차 헌금	……	483,000원

◉ 감사헌금

최영자 율리아나	……	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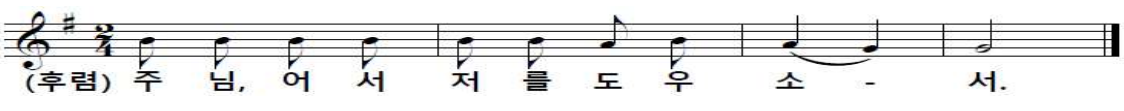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성모순례지 후원금	……	395,000원
최 성 윤	……	10,000원
황 은 순	……	10,000원
초 봉 헌	……	375,000원

* 정기후원 문의는 사무실을 찾아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01-0182-0168-51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금주의 복음 말씀 -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화답송